



박 교 신 | 공주시청 수도과  
(sinkyoup@naver.com)

## 정감록 십승지의 고장, 유구!

유구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유구를 알아야 한다. 유구는 백제시대에는 벌음지현, 신라시대에 청음현, 고려 때에는 공주목의 영현인 신평현에 속하였고, 남도지방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유구역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신평현에 속해 있다가 1750년 먼리가 정착되면서 신평현이 신상면과 신하면으로 분리, 유구읍이 위쪽이라 하여 신상면으로 칭했고, 1942년부터 유구역의 이름을 따 유구면으로 하다가 1995년 유구읍으로 승격되었다. 유구는 십승지에 걸맞게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다는 정감록의 믿음에 따라 한국전쟁과 일제시대 전후로 이북의 피난민들과 타지역 주민들이 유구에 정착하였다. 유구는 직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한때 직물공장이 130여개 업체가 호황을 누렸으며 지금은 자카드직물(jacquard)로 유명하다. 유구는 정계·관계·경제계·법조계·체육계·교육자 등 수많은 인재들이 꿈을 키운 고향이기도 하다.

유구천은 금강권역의 수계에 속하며 금강의 제일 큰 지류



(그림 1) 유구천의 발원지인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전경. 이곳 문금리는 맑은 물을 이용하여 무궁해 우렁이 농법 쌀을 생산하고 포고버섯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림 2) 유구천 발원지 탐곡리 천방산 탐산지역, 표고버섯과 밤, 그리고 수많은 인제가 많이 배출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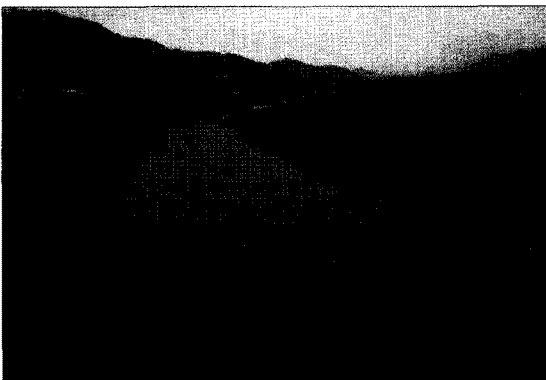
로서 문금리 불당골과 탐곡리의 탐산에서 발원하여 남서류하는 유로연장 40km인 지방2급 하천이며, 유구를 지나 신평면, 사곡면을 지나면 지방1급 하천으로 격상되며 우성면을 거친 후 금강에 합류한다. 여기에서는 유구지역을 흐르는 하천에 대하여서만 말한다. 유구천 주변으로 문금리, 덕곡리, 탐곡리, 추계리, 명곡리, 신달리, 입석리, 신영리 등 유구를 이루는 많은 마을과 비옥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맑고 깨끗한 유구천은 나의 어린 시절을 흥분케 한다. 입석리 태봉산에서 시작되는 조그만 냇물은 유구천의 지천이다. 여름이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 등이 더위를 식히며 지냈고 나 역시 가재를 잡으며 천렵을 했던 조그만 냇물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수업이 끝나면 동네 앞 유구천으로 달려나가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봄에는 호피기(버들피리)

를 붙고 여름에는 친구들과 맥 감고 어항 놓아 피라미·깨고기·마디·모래무지 등을 잡았고 가을에는 조그만 그물로 새우를 잡던 그 아름답고 깨끗한 냇물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물을 놓아 민물게를 잡던 그곳이었다. 또 유구천은 유구지역 직조공장의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불태운 낭만의 하천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는 유구천이 말 그대로 무지하게 깨끗하였다.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 물막이 공사를 한다하여 논농사를 하는 농민 모두가 지게와 삽을 들고 나와 냇물 보 막이 공사를 했다.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한케는 나무를, 한칸은 돌과 모래를 이용하여 보를 막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얼마나 현명하고 친환경적인 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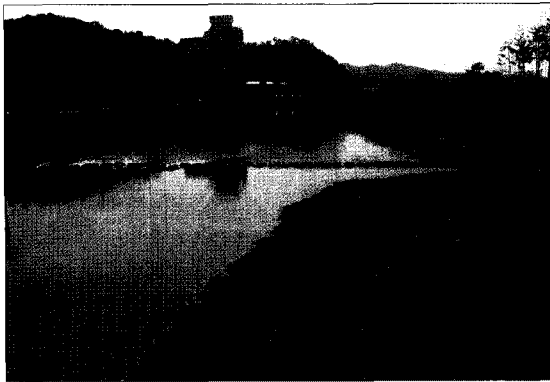
한참 논농사를 지을 때에는 나무와 자갈을 이용한 보로 물을 막아 모내기를 하였으며, 여름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물놀이를 하는 수영장으로 변했고 장마가 질 때에는 (논에 물대기가 거의 끝나는 시기임) 보가 떠나려가 물고기가 올라오고 금강에서 뱀장어·계 등이 상류인 유구천으로 산란하러 오면 그걸 잡아먹을 수 있었던 친환경적인 보였지만 불편하기는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농민들 편하게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사지이라고 지금의 콘크리트 보를 세



(그림 3) 어린 시절 맥 감고 새우를 잡던 입석리 앞 냇가

왔다.

하천이 깨끗했던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지금은 주택이나 축사에 정화조가 설치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단지를 묻어둔 뒷간이었다. 그곳에서 모인 분뇨를 모아 비료가 부족한 논밭에 뿌려 하천의 주 오염원인 암모니아 질소 등이 하천으로 흐르지 않았으며, 대량으로 키우는 가축이 아니라 한두 마리씩 키우는 가축이나 가축분뇨도 퇴비나 거름으로 이용하여 하천으로 투기되지 않았고, 논에는 모내기 전에 산이나 들에서 풀을 깎아 논에 퇴비로 사용하여 우렁과 미꾸라지가 많이 살았다. 지금 우리가 다시 찾는 친환경 유기농법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배가 고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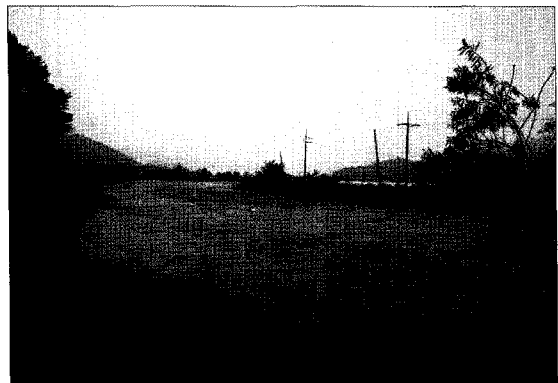
〈그림 4〉 유구읍 소재지를 흐르는 유구천

그리 좋던 하천이 언제부터인가 잡초가 우거지고 그 반들 반들 하던 조약돌 등에 이끼가 많이 생기고 바닥은 더러운 녹조와 이물질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많던 재첩조개와 소금쟁이(미호종개)·마디·모래무지·하늘고기 등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2급수 이하에서만 생존하는 말조개가 생겨났다. 각 가정의 정화조와 생활하수 그리고 논에서 나오는 비료기 많은 논물, 축사분뇨 등이 어우러져 나오면서 특히 갈수기인 4월에서 6월까지에는 그야말로 더러운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식량증산과 주택개량, 대규모 축산 등으로 이루어진 피해현상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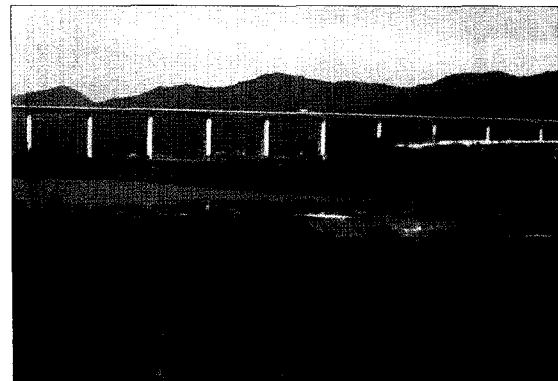
“어찌하랴! 잘살아야 되고 편하게 살아야 되지. 하천이야 더러우면 어쩌랴!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 깨끗해질 텐데!..” 모두가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또 다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때 적극적인 대처로 하천을 보호할 수 있었다. 1990년경 모내기를 시작할 5월 어느 날 일요일 아침 9시경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문금리에서 유조차 전복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는 전화를 받고 우선 상부에 보고를 마친 후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유조차에서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어 흐르고 있어 하천유입을 막기 위하여 우선 응급조치방법 하나로 삽으로 도랑을 막아 인근 주변 논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유구주민의 식수원인 유구천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 참으로 아찔한 사건이었다.

유구천은 유구읍민 신평면소재지 주민의 식수다. 그 깨끗한 유구천이 갈수기만 되면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 주변에는 부락과 거리가 멀어 자연 정화로 식수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또 100~200m 간격으로 콘크리트 보가 무수히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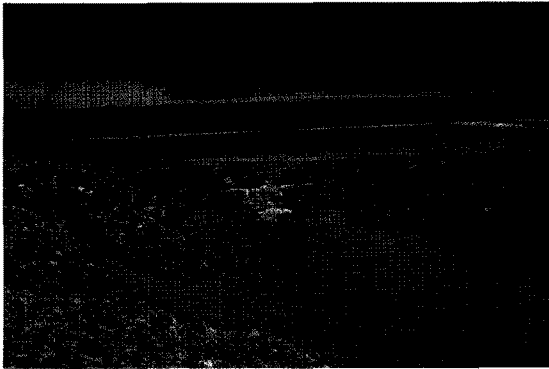


〈그림 5〉 유구천 장마시 떠내려가는 쓰레기



〈그림 6〉 붓물이 적어 정체된 장면

보는 경지정리가 잘된 논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어 벼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붓물이 적으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며 또한 물고기의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하천수보다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작지가 많아 벼농사에 필요성이 많이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콘크리트 보는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고려하여 물고기도 왕래가 가능한 친환경 보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7〉 현재 유구천 콘크리트보

2001년의 가뭄은 유구천을 살려야 한다는 계기가 되었다. 약 80일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자 유구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모두가 나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였다(공주신문 2001년 6월 29일 6면 참조). 그때까지만 해도 유구의 웅진식품에서는 유구 상수도 급수를 이용하여 각종 음료를 생산하였다(웅진코웨이, 웅진식품은 1985년경에 유구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지역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향토기업인). 그러나 식수가 부족하고 갈수기에는 수질악화 우려로 자체 수원을 개발하여 음료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바닥을 드러낸 유구천은 엉망이었다. 상상에 맡기기로 한다. 가뭄이 해소된 다음,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구천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유구 상수도 취수원 주변에 물억새와 갈대를 3년간 식재하여 그동안 장마가 지면 유입되던 흙탕물을 완전히 해소하고 경작지에서 유입되는 비료성분을 갈대나 물억새 등 수생식물이 흡수함으로써 맑은 물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8〉 수생식물로 가득한 유구상수도 취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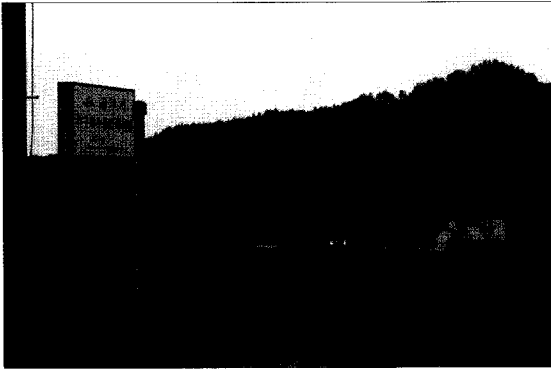
상수원 주변은 그래도 수질이 깨끗하게 보존관리 되었으나 소재지 주변하천은 생활수로 엉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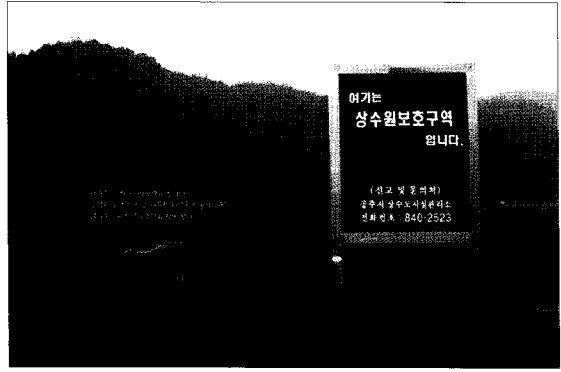
〈그림 9〉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

기형 물고기가 생겨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 같은 반점이 생겨나곤 하였다. 참고로 유구지역은 전국 최대의 자카드섬유 생산지이다. 그리하여 염색공장의 폐수가 정수를 한다지만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하천에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심각한 유구천을 살리고 유구주민들의 생활하수를 해결하고자 공주시에서는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거, 민자를 유치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유구소재지 전 지역에 하수관공사를 3년여에 걸쳐 건설하여 생활하수와 공장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하천의 생태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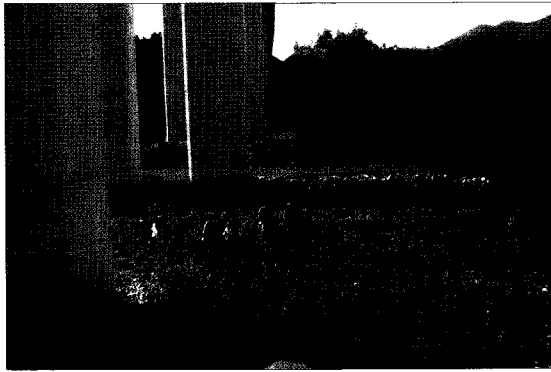
또한 유구읍 시민단체와 기업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유구천 가꾸기 사업에 나섰다. 신영리 하천주변 등에 생태하천을 공주시와 정부기관과 지역기업이 함께 조성하여 하천의 중요성과 깨끗한 하천 가꾸기에 앞장서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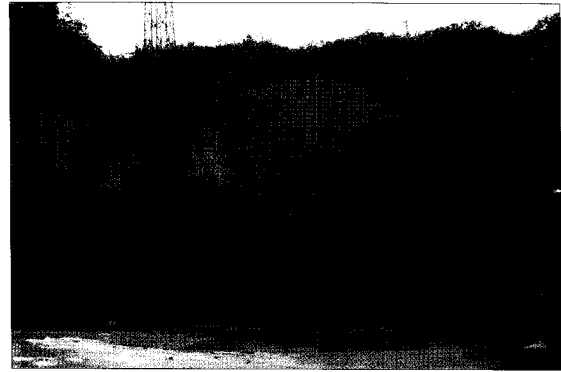
〈그림 10〉 유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전경



〈그림 12〉 환경부, 공주시와 웅진그룹에서 설치한 수생식물 생태하천



〈그림 11〉 장마시 더럽혀진 유구천 쓰레기를 줍는 유구로타리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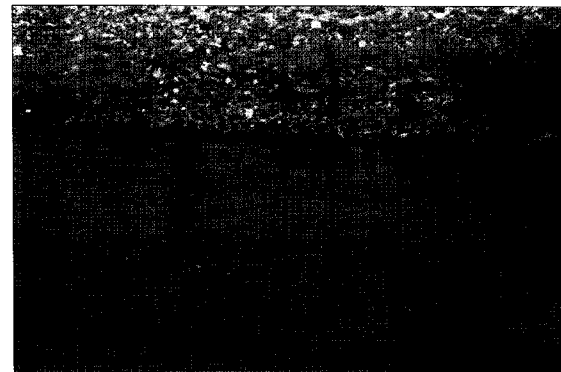
〈그림 13〉 우렁이농법 벼농사 시범마을인 만천리

이 견학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는 교육장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유구 시민단체와 지역기업에서는 유구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오염지역 분담을 만들어 하천변 쓰레기 및 정화작업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또한 웅진그룹에서는 유구천 주변마을과 경작지에서 나오는 농약 빈병이나 각종 재활용품을 유료로 수집하여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에 앞장서 그 수익금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구천의 맑은 물을 이용한 우렁이농법 벼농사를 적극 권장하여 전량 수매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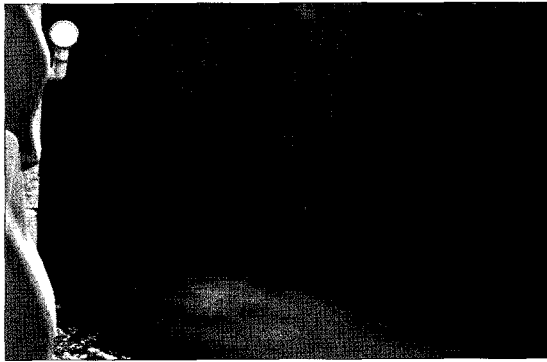
유구읍 주변에 흐르던 더러운 물도 공주시의 적극적인 하수관공사와 지역시민단체와 기업의 하천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봉사활동과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결국 하수관공사로 생활하수가 유구천으로 유입되지 않아 유구천이 맑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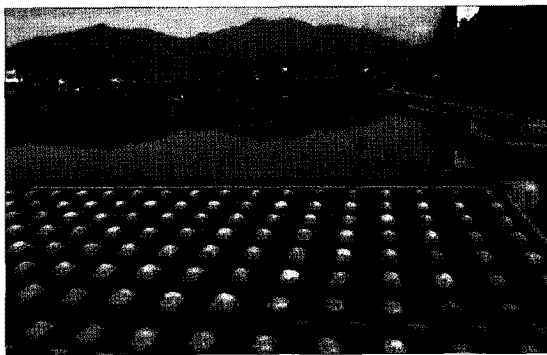
〈그림 14〉 깨끗해진 유구천에서 한가로운 노니는 오리들

이제는 새로운 하천정비계획으로 하천이 정비되어야 한다. 하천정비계획만으로는 하천이 절대로 맑아지지 않는다.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하천주변 마을에 있는 현재의 축사는 소규모로 되어있어 하천오염 주범 중 하나다. 그리하여 소규모 축사를 마을단위 공동축사로 관리하고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소규모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하천 주변의 농경지에서 모내기철만 되면 논에서 모를 심기 위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흙탕물은 참으로 심각

하다. 각종 비료성분과 농약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그 물은 그대로 하천에 흐른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15) 경작지에서 유구천으로 흐르는 흙탕물



(그림 16)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맑아진 유구천

“지금은 논이 경지정리가 잘되어 배수로의 물이 합수지점을 지나 하천으로 흐르게 되는데 말구지역에 수초침사지역을 약100여 평 조성하여 그곳에서 인이나 질소 농약성분을 어느 정도 걸러내어 하천으로 보낸다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아무리 생활하수나 축산분뇨가 깨끗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약 2개월간 (4월~6월) 하천으로 버려지는 논외의 흙탕물은 참으로 심각하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하천의 심각한 오염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을부터 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약 2개월 그시기에 하천에는 치명적인 생태교란이 일어난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는 말하는 이가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아무데서나 고기 잡고 먹 감고 추억을 만드는 유구천! 이제는 전국에서 제일로 깨끗한 하천으로 변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사라졌던 소금쟁이(미호종개)·하늘고기·구구리·깨

고기 등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하천에 먹을 것이 많아지고 오염원이 차단되니 원앙을 비롯한 겨울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다. 밤이면 반딧불이가 번쩍이기도 한다. 다슬기를 먹이로 하는 반딧불이는 물이 살아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참고로 수십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희귀종만 나열하였음. 또한 과학적인 수질자료도 생략하였다).

또한 하천 주변으로 많은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되고 있지만 비가 오면 도로에서 흐르는 우수 또한 문제이다. 이 또한 심각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곳에는 차량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물은 생명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중한 우리의 하천을 깨끗이 보존하고 관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우리도 깨끗한 하천을 조상들에게 물려받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항상 말한다. “그 누구한테도 앞으로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이 땅값도 올라가고 우리 모두가 그런 곳만 찾게 될 것이라고...”



(그림 17) 맑아진 유구천 하류지역에서 한가로이 즐기고 있는 재색두루미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수인 유구천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하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물은 생명이며 우리의 희망이니까! 형식적이고 비상식적인 하천 살리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